



# 한옥정책 브리프 hanok policy brief

##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 현황 및 개선방안

이강민 국가한옥센터장, 최은숙 연구원

### 요약

-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'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-설계과정'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4개의 기관에서 약 45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함
- 교육시간은 160시간 이상을 요구하고, 특강·현장학습·봉사활동 등에 40시간을 의무화하였으나,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및 교과과정의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남
- 수료생 설문 결과, 현대건축에 한옥을 접목시키기 위해 교육에 참여하였으며, 교육은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나, 한옥 설계 능력 제고를 위해 향후 심화과정 지원을 희망함

### 정책제안

- 현재 한옥건축 시장규모에 비해 많은 수료생이 배출되고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기본 교육인원을 축소하고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 내실화 방안 필요
- 현 교육과정은 한옥 도면 및 구조 이해를 중심으로 구성하고, 심화과정은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한옥설계에 초점을 맞추어 개설
- 교육시간 및 교과과정을 표준화하여 교육수준의 격차를 줄이고, 수료생들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

## 1. 한옥설계 전문인력 교육성과 및 문제점

### 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‘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-설계과정’을 통해 한옥설계 전문인력이 증가함

- 건축사 대상의 한옥 설계 전문교육은 극소수의 민간 기관에서 시행해 왔으나, 최근 국토교통부의 ‘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-설계과정’을 통해 다수의 수료생을 배출함
- 2011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2013년말 기준 약 450여명이 교육을 수료함
  - 2011년에는 2개 기관(명지대학교, 전북대학교)에서 9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, 2012년부터는 4개 기관(명지대학교, 전북대학교, 경상대학교, 대한건축사협회)으로 확대 운영하여 매년 18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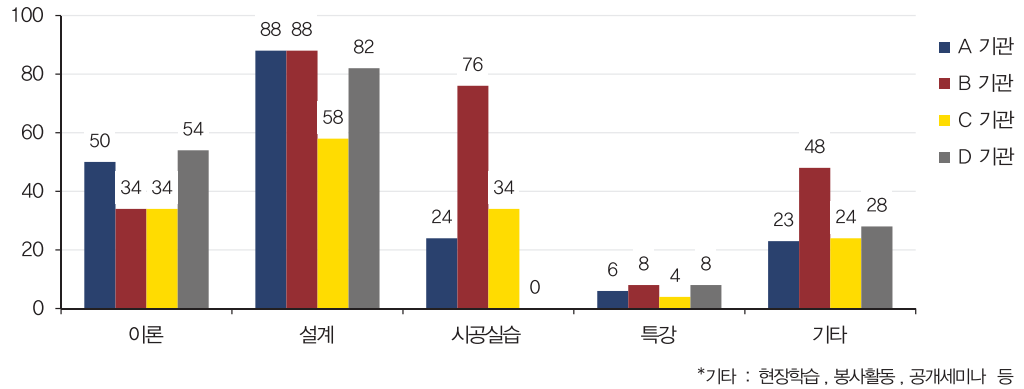
표 1.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-설계과정 수료생 배출 현황 (단위:명)

	명지대학교	전북대학교	경상대학교	대한건축사협회	합계
2011년	45	47	-	-	92
2012년	44	47	43	46	180
2013년	45	45	40	48	178
합 계	134	139	83	94	450

### ■ 기관별로 교육시간 및 교과과정의 편차가 커 동일교육 이수로 인정하기 어려움

- 교육기관 모집공고시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
  - 총 160시간 이상 교육(6시간×4주×6개월). 총 교육시간 중 특강(2시간) 4회 이상, 현장학습 2회 이상, 교육 봉사활동(8시간) 2회 시행으로 160시간 중 40시간에 대한 기준 제시
- 교육기관별 총 교육시간 및 교육시간 배분의 편차가 큼
  - 총 교육시간은 A기관 191시간, B기관 254시간, C기관 154시간, D기관 172시간으로 최대 100시간의 차이가 나며, 이는 6시간 교육일 기준 약 17일에 해당하는 큰 차이
  - 교과과정을 이론, 설계, 시공실습 등으로 나누어볼 때,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과정은 시공실습 과목으로서 76시간을 배당한 기관과 전혀 교육하지 않는 기관이 있음

그림 1. 기관별 교육시간 배분 현황 (2013년)



- 이론 교과목의 구성은 대체로 유사하나 과목별 시간배분에서 차이를 보임
  - 이론 교과목은 한옥의 시공 및 재료, 한옥의 배치와 조경, 한옥의 구조 및 설계, 법규, 역사 및 기초이론 등으로 구성
  - 평균 43시간의 이론 과정에서 시공 및 재료에 15시간 이상을 할애한 기관이 있는가 하면, 역사 및 기초이론에 20시간을 배분하기도 하여, 과목별 비중의 차이가 큼

그림 2. 이론 교과목 구성 및 교육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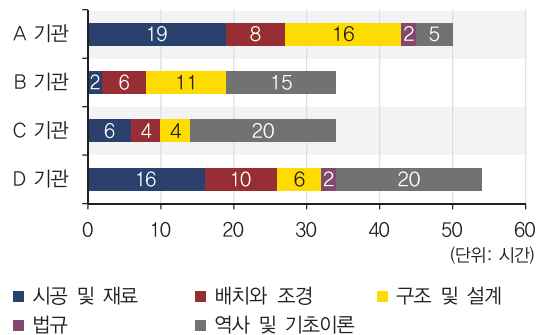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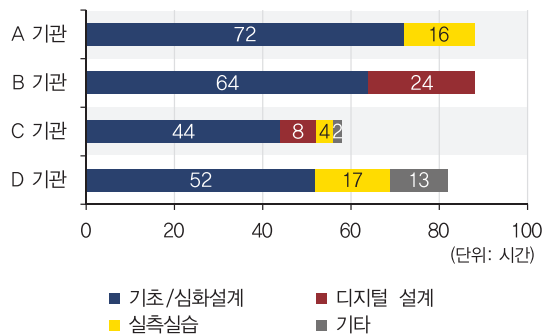


그림 3. 설계 교과목 구성 및 교육시간



- 설계 교과목의 구성은 디지털 설계나 실측실습의 유무에 따라 차별화 됨
  - 설계 교과목은 설계스튜디오 이외에도 평균 30%의 시간은 BIM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설계나 현장을 조사하는 실측실습 등으로 구성되는데, 대체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20시간 이상의 교과과정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

## 2. 한옥 설계 수료생 설문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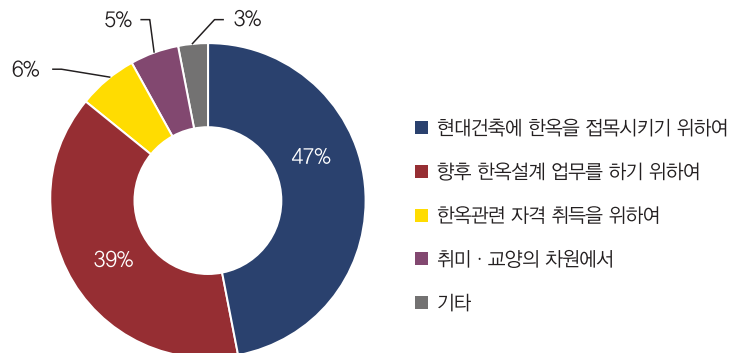
### ■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생 2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실시

- 2014년 4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2011년~2013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-설계과정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, 교육과목 및 시간배분의 적절성, 강사 및 시설만족도, 심화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
- 대상자 약 450명 중 48%에 해당하는 218명이 응답
  - 응답자는 경력 10년 이상의 40대 건축사가 주를 이루며, 대부분 본 교육이외에는 한옥설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

### ■ 교육의 목적은 현대건축에 한옥을 접목시키거나 향후 한옥설계 업무를 하기 위함

- 교육을 신청한 이유를 묻는 설문에서, 향후 한옥설계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(39%)보다 현대건축에 한옥을 접목시키기 위해서(47%)가 더 높게 나온 것은 건축사들이 한옥건축 자체의 시장성보다 한옥의 다양한 현대적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

그림 4. 교육을 신청한 이유



### ■ 설계 스튜디오와 시공실습 시간 증가 요구

- 총 교육시간은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며(62%) 교과목들의 시간 배분도 대체로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됨(58%)
- 그러나 설계 스튜디오의 교육시간 증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17명(53%), 시공실습의 교육시간 증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18명(54%)으로, 이론 등의 교육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## ■ 한옥실측과 한옥구조 이론이 가장 도움이 됨

-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은 한옥실측 및 도면작성(43%)와 한옥 구조이론(35%)
  -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은 한옥실측 및 도면작성, 한옥 구조이론, 한옥 설계, 목구조 이론 순이며,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도 동일한 순위로 나타남
  - 한옥실측 및 도면작성, 한옥구조 이론 등은 정밀한 형태와 치수, 결구법이 제시되는 과목으로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있음
  - 이밖에 한옥 적산법 등은 큰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,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으로서 내실있는 운영전략이 필요함
- 일본/중국 등 건축역사, 기초제도, CAD·BIM 실습, 봉사활동, 구들 실습·이론 등은 반드시 배우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과목으로 생각함
  -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 및 선호도를 고려하여 교과과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
- 심화교육을 통해 더 배우고 싶은 과목으로서 한옥설계가 약 40%를 차지하였고, 한옥시공 및 재료가 20%로 4위로 올라섬
  -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이 기초적인 도면작성과 원리이해에 관한 것들이었던 반면, 향후 심화교육은 실제 건물의 설계와 시공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

그림 5. 가장 도움이 되었던 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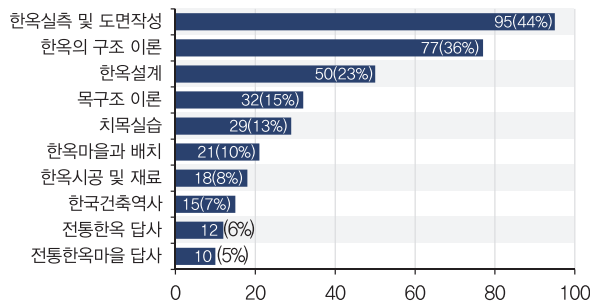


그림 6.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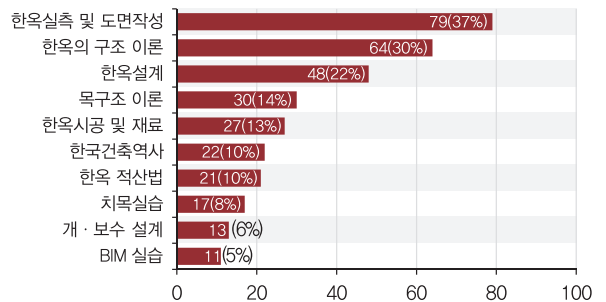


그림 7. 배우지 않아도 되었을 과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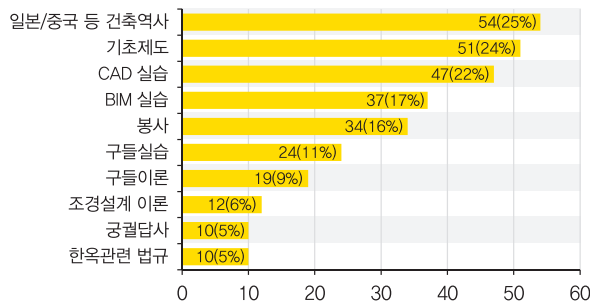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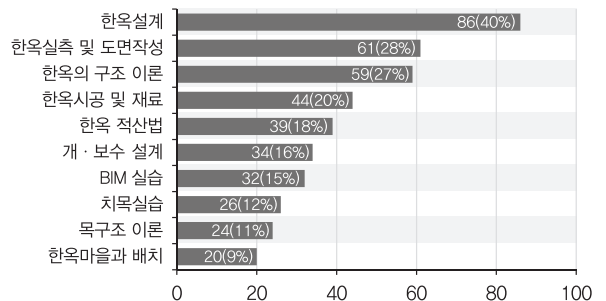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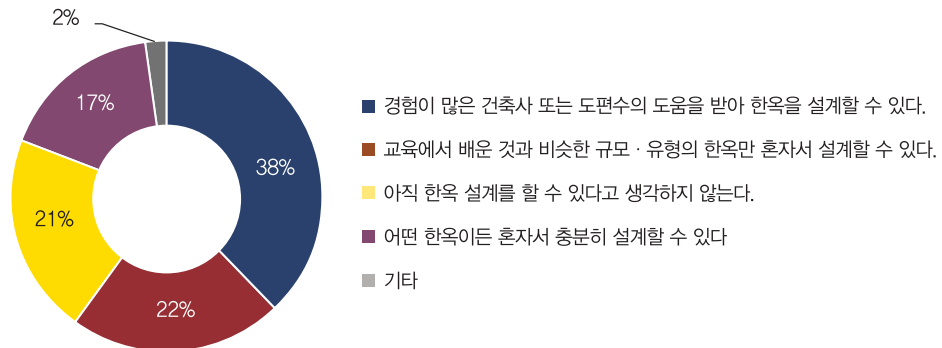
그림 8. 심화교육에서 배우고 싶은 과목



■ 교육 수료 후 어떤 한옥이든 혼자서 충분히 설계할 수 있다는 응답자는 17%

- 교육 내용은 한옥 실무에 도움이 되었다(83%)고 응답했으나, 교육을 받은 뒤에 한옥을 혼자서 충분히 설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, 아직 한옥 설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수료생도 21%에 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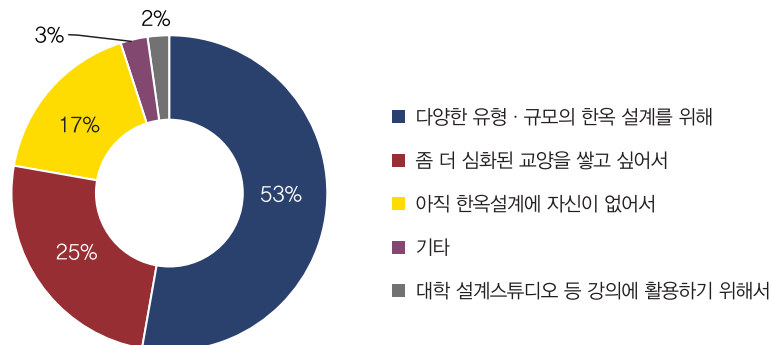
그림 9. 교육을 받은 뒤에 한옥 설계 능력



■ 심화교육 지원의지가 있는 응답자는 80%, 지원이유는 다양한 유형·규모의 한옥 설계를 위해

- 심화교육 과정이 개설된다면 바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이 120명(55%), 향후 2~3년 내에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55명(25%)로 심화교육과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
- 심화교육 지원 이유는 다양한 유형·규모의 한옥 설계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04명(53%)으로 다변화되고 구체적인 심화교육 기획이 필요

그림 10. 심화교육 과정에 지원하려는 이유



#### ■ 기타 의견

- 교육을 수료한 뒤 심화교육 이외에도 단기교육, 특강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,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자료 등을 공유하기를 원함
- 4개의 기관 이외에도 더 많은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인터넷 강의 등 지역적 한계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교육 방안 필요

### 3.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 개선방안

#### ■ 단계적으로 기본교육 인원 축소

- 현재 한옥 건축시장 규모에 비해 많은 교육 수료생이 배출
  - 전체 건축시장에서 한옥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0.7%에 불과한데, 등록건축사 중 한옥 전문인력 설계과정 교육 수료생은 이미 약 4%를 차지
  - 현재의 추세로 보면 2018년에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-설계과정 수료생이 전체 등록건축사의 10%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, 교육 희망자의 수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- 단계적으로 기본교육 인원을 축소하면서 다양하고 특수한 교육기회 제공방안 모색 필요
  - 수료생의 양적 증대보다는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교육 내실화 방안 필요

#### ■ 심화교육 과정 신규개설 및 교육과정별 목표 설정

- 기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교육 과정을 개설
  - 심화교육과정은 기본과정이나 이에 준하는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또는 기본과정을 이수한 수준의 설계능력을 가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특화교육을 실시
- 현 교육과정은 한옥 도면 및 구조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, 심화과정은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한옥설계를 목적으로 구성
  - 교육생들의 요구를 적극 고려하여, 기본과정에서는 한옥 실측 및 도면작성, 한옥 구조 이론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, 심화과정에서는 다양한 한옥 도면을 분석하고 직접 설계하는 스튜디오 중심으로 교육

## ■ 지속적인 한옥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

- BIM/CAD 실습, 한옥 적산법 등 교육생들의 호불호가 분명한 과목은 과목의 성격에 따라 2~3개월 또는 3~4회 교육으로 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단기강좌를 개설하여 선택적 수강기회 제공
- 한옥 신기술 개발 및 정책현황 등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은 세미나 및 워크숍, 특강 등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

## ■ 표준 교육시간 및 교과과정 기준 개발 필요

- 현재 교육기관별로 상이하게 운영 중인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교육수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표준 교육시간 및 교과과정의 기준을 설정함
  - 교육기관 간 총 교육시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, 최대교육시간을 제시할 수 있음. 예를 들어, 최소 교육시간인 160시간에서 10%(16시간) 내외로 교육시간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.
  - 다만, 교육기관별 특성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총 교육시간의 20%(32시간)는 기관별 커리큘럼 구성에 자율성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
- 필수 교과목 및 권장 교과목을 지정하여 모니터링 하고, 한옥설계 실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과목은 교육과정에서 삭제 검토
  - 교육생 설문에서 교과목 선호도가 높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한 한옥실측 및 도면작성, 한옥설계, 한옥의 구조이론, 목구조 이론은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을 강화하고, 이밖에 중요한 과목을 권장 교과목으로 지정하여, 교육성과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함
  - 교육의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고 교육생 선호도가 낮은 과목은 정밀하게 검토하여 교과과정에서 삭제를 검토
- 표준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의 인정 및 홍보 방안 마련 필요
  - 한옥 설계 교육을 이수한 건축사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한옥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하거나 적극 홍보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

문의 | [hjkim@auri.re.kr](mailto:hjkim@auri.re.kr)



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제해성  
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, B-301  
전화 031-478-9600 팩스 031-478-9609 [www.hanokdb.kr](http://www.hanokdb.kr)

